

10대와 즉석 만남 뺨에 걸린 어른들

“미성년자와 성매매 했지” 감금 협박 당한 14명 금품 뜯겨

광주광산경찰, 7명 검거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던 철없는 남성들이 뺨에 걸려 감금·협박 당하고 금품을 뜯겼다.

이들은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3명을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동조한 미성년자 여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할 사람을 찾는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성매매가 이뤄지면 현장을 급습해 현금을 받아냈다.

피해자는 총 14명, 갈취한 금액만 3495만원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기겨 대출까지 해가며 3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범행은 지난 2월 초 서울에 살고있는 주부 A(20)씨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동네 선·후배 2명에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달쳐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범행에 함께할 여성들을 모집했다. 여성들은 모두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각자 역할을 나눠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

A씨는 채팅 앱에 ‘OO간단만남’ 등의 문구를 올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들이 채팅 앱을 통해 지급받은 특정 차량에 탑승하면, 여성들은 이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했다. 이 때 남성 2명은 인근에서 대기하다 현장을 달쳐 미성년자 여성들의 보호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대부분 A씨 등 남성들이 가져갔으며 여성들에게는 수고비 수준의 금액만이 전달됐다. 빼앗은 돈은 생활비, 유희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불법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4명의 피해자들은 유사 성행위를 하려는 찰나 현장을 급습당한 탓에 실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성매매하려던 이들을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A씨 등은 한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달미가 잡혔다.

A씨가 한 피해자에게 얻어낸 가족의 전화번호로 “돈을 보내주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협박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감금된 모텔에서 2명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공범들을 검거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한 유사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가출 여학생에게 2회 가랑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같은해 8월에는 서구 상무지구의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9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2000여만원의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앱을 통한 몸캠, 성매매 등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깊어지고 있는 13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 ‘속도’...환자들은 ‘불안’

조선대병원 비대위 구성 논의 전남대병원 대응방안 마련할 듯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대병원 의대 교수들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전국적인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14일 오후 전체 교수 임시총회를 공고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향후 대책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것과 맞물려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 교수들은 금명간 열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현장을 지키고 있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론하자 계속 진료받을 수 있는지, 예정됐던 수술은 가능한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상을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사(공보의)들이 진료에 나섰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대병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남대학교병원 본원과 분원에 파견한 군의관·공보의 16명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등에 배치됐다. 그러나 파견 의사 상당수가 비필수와 전문의의

거나 일반의사인데다 소수에서 중과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5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됐고,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62명이 진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측은 지난 6일 본원 1동 6B 비뇨기과 병동과 8동 11층 성형외과를 폐쇄했다. 폐쇄 조치에 따라 환자를 수용할 71개 병상이 텅빈 상태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 수업 거부하는 학사 일정은 차질을 빚게 해 개인의 학업 성취와 학위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혁신과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해남 차량 안에서 경찰 간부 숨진 채 발견

전남 모 경찰서 간부가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남경찰은 13일 오전 8시 20분께 해남군 화산면 방조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전남 모 경찰서 A(51)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방조제 인근에서 작업하던 공사장 직원이 오랫동안 비상등을 켜 채 움직임이 없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A씨의 차량 내에서는 숨진 것과 연관된 물품이 발견됐으며, 블랙박스는 고장난 상태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해남읍 한 마트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고 화산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교량공사 노동자 크레인과 난간 사이 끼여 숨져

무안경찰, 안전 준수 여부 조사

무안군의 교량 개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

13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무안군 일로읍의 ‘일로-시중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교량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0)씨가

50t 토사 굴착 크레인 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신호수(교통안전 담당)를 맡아 사고 당시 크레인 뒷편과 가설난간 사이에서 있다가,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크레인 몸

체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현장 작업자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과실 및 입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